

# ‘한 여인의 지고지순한 사랑 이야기’

28일부터 이틀간 정읍사공원 일원서 정읍사문화제 개최

백제시대 한 여인의 지고지순한 사랑 이야기를 담고 있는 '제30회 정읍사문화제'가 오는 28일과 29일 2일간에 걸쳐 정읍사공원 일원에서 열린다.

정읍사문화제는 현존하는 최고의 백제가요 정읍사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보존하고 정읍사 여인의 숭고한 사랑과 아름다운 부덕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마련됐다.

28일 오전 백제가요 정읍사의 발원지인 정해마을에서 채수 의례와 정읍사 여인 제례를 시작으로 기획 퍼포먼스와 부도상 시상, 기념식, 축하 공연, 각종 체험행사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축하 공연에서는 '미스트롯'에서 진의 영예를 차지하며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가수 송가인이 특별공연을 선보인다.

이어 길구봉구, 진성, 윤하, 오로라, 뉴키드 등 최정상급 가수들과 무서운 기세의 신인 아이돌 그룹이 대거 출연해 화려한 공연을 펼친다. 특히, 올해는 롯데월드 퍼레이드 댄스단 5개 팀이 참여해 연지아트홀과 상동 공감플러스센터, 정읍사공원 일원에서 기획퍼포먼스로 환상적인 불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시내 주요 일원에서 버스킹 전용 차량

을 이용한 공연도 함께 펼쳐져 지난해보다 더 다양하고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지난해 높은 인기를 끌었던 '정읍사 러브 판타지 쇼'는 불꽃과 레이저, 판타지 서치라이트를 활용한 3차원 조명기법을 도입해 축제가 진행되는 2일간 가을밤 하늘을 수놓는다.

이밖에도 'LED소망풍선 날리기'와 '일루미네이션 포토존', '소원등 달기', '피아노와 함께하는 리마인드 프로젝트'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행사 양일간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부부사랑 노래자랑과 생활문화예술동호회 공연이 진행되며 현장에서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정동교부터 정읍사공원 일원에 꾸며질 아름다운 경관조명은 '사랑'을 주제로 형형색색 LED조명등을 설치해 축제장을 찾는 관람객에게 아늑한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한다.

29일 오후 18시부터는 신인가수 등용문인 '2019 정읍사가요제'가 정읍사공원 특설무대에서 화려하게 펼쳐진다. 초대가수로는 영탁, 설하윤, 오승근, SIS가 출연해 공연장의 밤을 뜨겁게 달군다.

유진섭 시장은 "시민과 관광객에게 보다 다



채로운 경험을 제공하고자 참여 중심으로 행사를 준비했다"며 "이번 정읍사문화제를 시작으로 깊어가는 가을 내장산 단풍축제와 구절초 꽃축제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 익산시, 9월 문화가 있는 날 다채로운 행사 '풍성'

익산시가 9월 문화가 있는 날인 25일과 해당 주간(9월 23일~29일)에 익산예술의전당, 미술관, 보석박물관 등 문화시설에서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마련하여 시민들의 문화 감성을 풍성하게 채워줄 예정이다.

익산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25일 오전 11시 '마티네 시네마 콘서트'가 관객들을 찾아간다. 이탈리아의 독보적인 아코디언 연주자 마르코 로 루스와 비올라 앙상블 콰르텟이 만나 감미로운 음악을 연주한다. 공연 관람료는 무료로 전화예매를 통해 관람할 수 있다.

익산예술의전당 미술관 세미나실에서는 25일 수요일 오후 7시 '한국사 내에서의 익산'이란 주제로 이효중 국립나주박물관 학예연구사의 특별강의가 열린다. 특강은 무료로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배산체육공원 야외음악당에서는 25일 오후 7시 30분 청춘합창단의 '가족음악회'가 열린다. 정춘합창단 단원들과 객원출연자들이 60~70년대 가요 및 성악곡으로 시민들이 쉽게 보고 듣고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온가족이 함께 관람할 수 있도록 무대를 꾸밀 예정이다.

익산역 내에서는 27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은점토를 활용한 반지 및 팔찌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사)전라북도 산업디자인

협회에서 주최·주관하여 접수한 선착순 30명의 참가자들에게 무료 체험 혜택을 제공한다. 이번 행사는 10월 25일, 11월 29일, 12월 20일, 12월 23일까지 총 5회 진행할 예정이다.

유적전시관 왕궁리 유적 일원에서는 28일 오후 8시부터 아름다운 가야금 선율이 가을밤을 밝힐 예정이다. 역사가 깊은 백제왕궁 일원에서 펼쳐지는 이번 공연은 누구나 편하게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또한 마한박물관에서는 25일 오전 10시 오감만족 공예체험 '수채화 담은 나만의 소고 만들기'를 진행한다. 사전에 선착순 20명의 참가자를 접수하여 무료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보석박물관에서는 25일 운영시간을 1시간 연장하여 오후 7시까지 개방하며, 관람료는 30~50% 할인된다. 또한 천연 보석 팔찌, 공룡화석 지우개, 이니셜 은반지 만들기 체험프로그램을 9월 28일부터 29일까지 2일간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운영한다. 특히, 이니셜 은반지 만들기는 체험비가 50% 할인된 8,000원으로 즐길 수 있다.

모현·영등·마동·부송·황등 시립도서관에서는 25일 '공공도서관 두배로 day'를 진행하여 당일 1인당 도서를 2배로 대출받을 수 있어 독서하기 좋은 가을날을 만끽할 수 있



다. 부송도서관에서는 28일 오후 2시부터 가족과 함께하는 연대이 도에 클래스를 운영한다. 부모 중 1인, 자녀 1인으로 구성된 2인 15팀 총 30명을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 접수한다. 샐러드 접시와 무지개 물고기 접시 등을 만들며 참가하는 가족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한다.

끝으로 익산 CGV, 롯데시네마에서는 28일 오후 5시부터 9시 사이에 상영하는 영화를 할인된 가격 5000원에 관람할 수 있다.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 건강하게 자라나 맘껏 꿈을 펼쳐라

어른을 위한 성장소설 '질라레비 활월' 출간

진안 출신 김종록 작가가 최근 용담호, 구봉산을 배경으로 한 소설 '질라레비 활월'을 출간했다.

한국학에 정통한 인문학자 김종록 작가의 여행경험과 철학이 배어있는 어른들을 위한 그림동화 '질라레비 활월.(출판사 다슬기)'은 성장소설이다. 생태와 환경을 중시하고 탈물질주의·탈산업화를 추구하며 자기 표현적 가치관을 묻는 교양소설이기도 하다.

질라레비 활월은 한국음악전통문화 단동 10훈 가운데 하나로 '취암취암', '도리도리', '짜짜공짜공' 등과 같은 것이다. 아이의 양팔을 벌려 잡고 새처럼 춤추며 '질라레비 활월~ 질라레비 활월~' 하며 건강하게 자라나 맘껏 꿈을 펼쳐라는 뜻을 담고 있다.

김 작가는 몽골 초원 검은 호수에서 살아가는 쇠재두루미 부족의 이야기를 의인화했다. 철새인 쇠재두루미는 겨울이 오기 전 해발 7000m가 넘는 히말라야 설산을 넘어 따뜻한 북반구에서 겨울을 난다. 산소가 희박한 고공에서의 장거리 비행을 위해 이들은 전사처럼 훈련한다.

하지만 한 어린 암컷 질라레비는 선천적 장애로 날개 근육이 약해 고공비행을 못한다. 작가는 도태될 위기에 처한 이 질라레비의 이야기를 통해 배려와 사랑, 생태와 환경, 탈물질주의를 이야기한다.

현명한 할머니와 함께 특별한 인생여행을 떠나는 주인공 질라레비는 겨울을 나기 위해 고인들의 나라 한반도로 날아와



진안고원의 용담호와, 구봉산, 마이산을 찾으며 이따금 눈물겨웠던 할머니와의 전생기억이 되살아나 치유와 회복의 시간을 갖는다.

한편, 김종록 작가는 진안에서 태어나 마이산과 운장산 자락에서 자랐으며 성균관대 대학원 한국철학과를 졸업하고 한국학에 정통한 인문학자로도 알려졌다. 일찍이 29세 때 밀리언셀러 소설 '풍성'로 필명을 날린 김 작가는 선 굵은 서사에 풍부한 교양과 현란한 사유, 특유의 직관이 담긴 독보적인 글을 써왔다.

/진안=우태만 기자

## 남원의 소리자원을 다양한 구성으로... '사운드 페스티벌'

남원은 10월 27일까지 38일간 남원시립 김병중미술관, 수지미술관, 남원다움관 등에서 '남원 사운드 페스티벌 2019'를 개최한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이번 페스티벌은 관객의 행동에 반응하는 사운드 기반의 행동하는 소리(Sound in Action), 치유와 풍경 중심의 워크숍 기반인 마음이 들려주는 소리(Sound in Heart), 과거와 현재 삶의 풍경을 소재로 한 체험형 전시 기반의 기억하는 소리(Sound in Memory) 등이다.

▲'행동하는 소리'를 담아내는 남원시립 김병중미술관에서는 배민경 작가의 소리반응 오브제 중심의 '노래하는 친구를 위한 재생자연' 등이 전시되고, ▲소리 치유와 소리풍경 중심의 워크숍 기반인 '마음이 들려주는 소리'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수지미술관에서는 연출을 맡은 황미용 전시감독(아사참의 사고력연구소 대표)을 중심으로 작가 4명가 소리 풍경, 소리예술, 소리치유, 소리산업콘텐츠의

주제로 다채로운 워크숍 기반의 공유전시회가 진행된다.

▲도시의 과거와 현재 삶의 풍경을 주제로 진행되는 '기억하는 소리'는 남원다움관과 수지미술관에서 남원문화도시사업추진위원회에서 추진한 근·현대기록구축사업 '메모리즈'의 미디어사운드 기반인 '리메이크 남원' 및 '남원라디오'와 지역 청년작가 김민희의 'Ugly Princess'가 남원다움관에서 기획 전시되며 이상호 작가의 타악 기반 리듬 퍼포먼스, 박석주 작가의 국악 기반 크로스오버 퍼포먼스, 박세광 작가의 창작무용 퍼포먼스가 진행된다.

국내에서 활동하는 15팀의 작가가 참여해 20여 개의 전시작품과 시연을 선보이는 이번 '남원 사운드페스티벌 2019'는 남원시 문화도시사업추진위원회의 사운드 스튜디오의 일환으로 제작된 작품으로 구성되어진다.

/남원=김기두 기자

Hello, Modern  
Gunsan Time Travel Festival  
2019  
10.4(금)~10.6(일)  
구시청광장 등 시간여행마을 일원